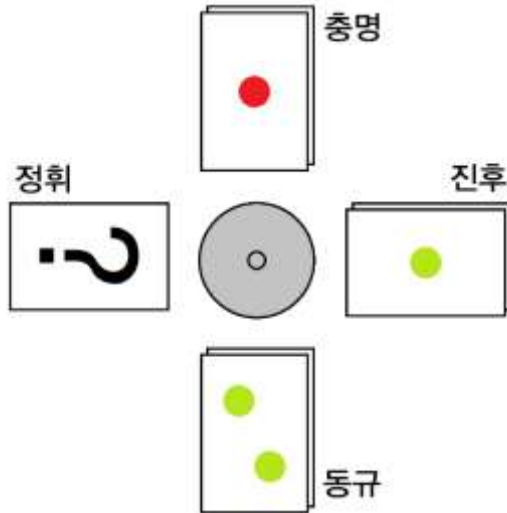


할래갈래 풀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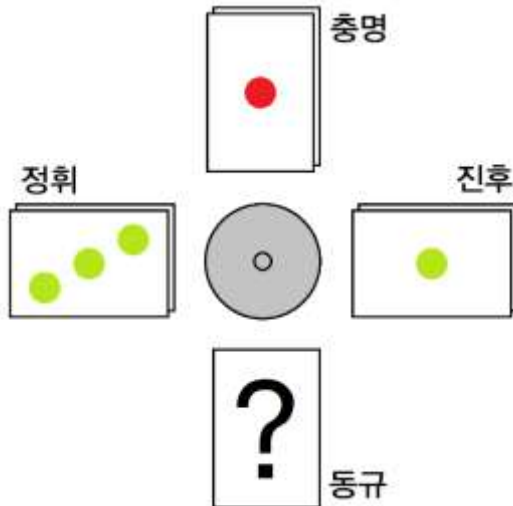
먼저 남은 카드를 따져 보자. 지금 사진에 보이지 않는 카드는 딸기 2/3, 포도 1/2/3이다. 라임 카드는 이미 전부 사진에 나와 있다는 점에 주목하자.

만약 정휘가 마지막으로 카드를 펼쳤다면, 사진을 찍기 직전의 상황은 다음과 같았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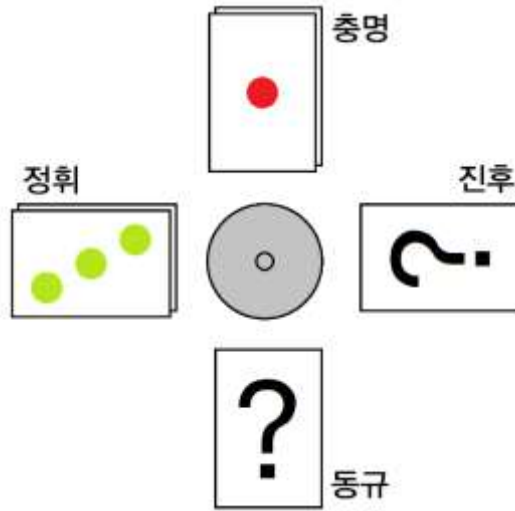


정휘가 첫 번째로 펼친 카드가 무엇인지는 몰라도 라임이었을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순간에는 라임이 정확히 3개 보였을 것이고, 누군가가 종을 쳤을 것이다. 하지만 할래갈래는 이 이후에도 계속되었으므로 마지막으로 카드를 펼친 사람은 정휘일 수 없다.

만약 동규가 마지막으로 카드를 펼쳤다면, 사진을 찍기 직전의 상황은 다음과 같았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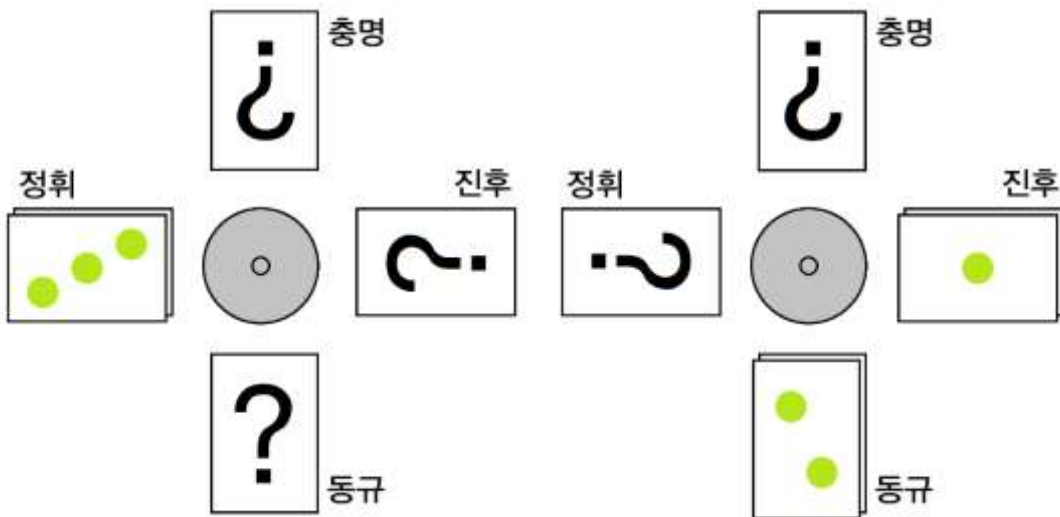
만약 이 직전에 카드를 펼친 사람이 진후였다면, 진후가 카드를 펼치기 직전의 상황은 다음과 같다.



동규와 진후가 각각 처음으로 펼친 카드들이 라임이었을 수 없으니, 이 시점에서 라임이 정확히 3개 보였을 것이고 누군가가 종을 쳤을 것이다. 하지만 할래갈래는 이 이후에도 계속되었으므로 마지막으로 카드를 펼친 사람이 동규고 시계 방향으로 할래갈래가 진행되고 있었을 수는 없다. 하지만 반대로, 마지막으로 카드를 펼친 사람이 동규고 반시계 방향으로 할래갈래가 진행되고 있던 것은 가능하다. 이 경우 9번째 카드를 펼칠 사람은 진후가 된다.

진후가 마지막으로 카드를 펼쳤을 경우도 마찬가지로, 그 직전에 카드를 펼친 사람이 동규일 수는 없다. 그 직전에 카드를 펼친 사람이 동규라면 위의 상황과 똑같은 상황이 되어 라임이 3개 보이기 때문이다. 다만 마지막으로 카드를 펼친 사람이 진후고 시계 방향으로 할래갈래가 진행되고 있던 것은 가능하다. 이 경우 9번째 카드를 펼칠 사람은 동규가 된다.

만약 충명이 마지막으로 카드를 펼쳤다면, 할래갈래가 어느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었든 다음 둘 중 하나의 상황이 과거에 나온 적이 있을 것이다.



물음표 카드는 라임일 수 없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 종이 올렸어야 한다. 하지만 할래갈래는 이 이후에도 계속되었으므로 마지막으로 카드를 펼친 사람은 충명일 수 없다.

이상의 결론을 종합하면, 9번째 카드를 펼칠 사람은 동규 또는 진후라는 결론이 나온다.

그렇다면 동규 또는 진후가 펼칠 9번째 카드로 어떤 카드가 나와야 한 종류의 과일이 정확히 3개 보일까? 답은

딸기 2 또는 포도 3이다. 딸기 2가 나오면 딸기가 정확히 3개 보일 것이고, 포도 3이 나오면 포도가 정확히 3개 보일 것이다.

만약 9번째 카드가 딸기 2라면, 딸기 1과 2는 마지막 다섯 장 안에 쓰였으므로 처음 펼쳐진 4장의 카드 중 딸기 카드는 딸기 3밖에 없다. 그러면 카드가 4장 펼쳐진 시점에서 딸기가 정확히 3개 보였을 것이고, 누군가가 종을 쳤을 것이다.

만약 9번째 카드가 포도 3이라면, 처음 펼쳐진 4장 안에 포도 1과 포도 2가 있을 것이다. 그러면 카드가 4장 펼쳐진 시점에서 포도가 정확히 3개 보였을 것이고, 누군가가 종을 쳤을 것이다.

어느 경우든 할래갈래는 진작 끝났어야 한다. 아직 할래갈래가 끝나지 않았다는 것은 9번째 카드가 딸기 2나 포도 3이 아니라는 뜻이다. 따라서 이들은 9번째 카드가 펼쳐져도 종을 울릴 수 없다! 결국 총명, 진후, 동규, 정휘는 굶주린 배를 움켜잡고 집으로 터덜터덜 돌아갈 수밖에 없었다.

사진에 찍힌 상황이 사실 불가능한 것은 아닐까 의문을 가질 독자들에게 귀뜸하자면, 위와 같은 사진이 찍힐 수 있는 게임 이력은 총 5가지나 있다.